

## 간호이론 정립

〈본회서울시지부 교육위원회〉

# 간 호 概 念

— Bertha Harmer 편 —



## 이 영 희

〈국립의료원 간호학교전강〉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 I. 서 장

간호의 개념을 論함에는 관점에 따라 여려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오늘 이자리에서는 미국의 N.L.N(National league of nursing)誌에 소개된 몇 사람 중, Bertha Harmer의 Theory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Bertha Harmer는 Canada, Montreal에 있는 McGill University의 간호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Florence Nightingale과 Clara Weeks-Shaw에 이어, 간호의 원칙과 실제에 대한 저서를 통해, 간호의 개념에 대해 서술한 바 있는 분이다.

원래 Harmer는 Shaw와 같이 Nightingale의 理論에 바탕을 두고 있고, 연대적으로 보아서도 (물론 개념을 論한 이 중, N.L.N誌의 Nursing development conference group이 소개한 10名 중에서...) 이 두 사람의 뒤를 이은 이로서, 이 러한 Harmer의 理論을 말하기 前에, 여기서 잠간, Nightingale과 Shaw의 持論을 간추려 볼

### II. 「나이팅게일」의 說

Nightingale은 1859년에 편 그의 저서 "Notes on nursing"에서, "모든 여성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는 달리, 일상 生活을 통해 필요로 하고 터득한 질병 예방과 회복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모든 여성은 간호원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간호를 전강과 질병에 관계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Nightingale은 또한 1893년 저출한 "Sick nursing & Health nursing"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질병이란 건강을 해치는 상태로써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고,

"건강이란 단순히 「좋은 상태」만이 아니고 人間이 지니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잘 活用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각각 그 정의를 내렸다.

마라서 "간호란 질병과 삼치를 예방하고 치유-

되도록 하며, 건강을 회복 내지 유지하도록 「최적의 상태 (Best possible state)」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나이팅게일이 역설한 持論을 산발적이거나마 친족에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호하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개개인의 위생과 건강에 까지 포함 된다고 했던 것이다. 즉 이는 간호가 가지는 의미의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한 말이라 할 수 있겠다.

2. 간호는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건강간호 즉 일반적인 간호이고, 다른 하나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간호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現代에 이르른 보건간호와 임상간호의 母體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다.

3. 원래 간호의 목적은, 그 기능과 결과로 볼 때 의학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처음부터 看護의 고유한 目的과 기능을 일컬은 말이라 할 수 있겠다.

4. 간호는 그 목적은 같으나, 환자가 받는 치료의 형태에 따라 의학 분야에서와 같이 연관성 있게 분류된다고 했다. 즉 내과간호, 외과간호로 나누고 같은 말이라 할 수 있다.

5. Physician이나 Surgeon은, 질병을 치유하여 본연의 건강한 상태에 돌아가게 하는 “간호”의 성과에 크게 혹은 적게 작용한다고 했다. 이는 성공적인 간호, 혹은 그 실패에 의사가 多少 관여됨을 뜻함과 동시에 相互협조가 필요함을 일컬은 말이라 할 수 있겠다.

6. 건강간호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질병을 간호하는 사람, 즉 Physician과 관계를 가지고서 특별히 교육을 받고 실습한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했다. 여기서, Physician와 관계를 가진다는 말은, 질병간호와 의사와의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 말이며, 건강간호를 일반간호라 할 수 있을 만큼 보편성이 있고 일반성이 있음을 뜻한 반면에 질병간호는 특수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한 말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간호교육 과정에서, 보건간호는 일상생활을 통해 人間사회 바로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본적인 교육으로 되어져야

하며, 임상간호는 정상을 벗어난 특수인 즉, 질병을 앓는 이를 간호해야 하는고로 좀 더 detail하고 좀더 깊은, 그리고 좀더 차원이 높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理論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7. 간호는 하나의 기술 즉 Art이며 지식의 집단이라고 했다. 이는 간호가 기술로서만 이루어 질 수 없고 지식이 있어야 됨을 뜻한 말로서, Nightingale은 일반적인 건강간호를 위한 지식에 대해 청결과 위생에 관한 지식으로 규정지었고, 질병간호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청결과 위생에 관한 지식외에도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에 대한 지식까지 포함 시켰다.

이상이 대강 친족에 본 Nightingale의 說이자 하겠고 다음엔 Shaw의 說을 얘기해 보기로 하겠다.

### III. Clara Weeks-Shaw의 說

Clara Shaw 역시 Nightingale과 거의 비슷한 나이에 학설을 편 사람으로 (1859~1921년대) Nightingale과 같이 간호를 질병과 건강에 관계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Shaw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전전한 조직 (Sound organism)에 있어 순수한 혈액 (Pure blood)의 완전한 순환 (Adequate circulation)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질병이란 위의 세 용어 즉 전전한 조직과 순수한 혈액, 그리고 완전한 순환이라는 용어의 연결에서 어떠한 이탈이라도 있을 때를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란 이러한 이탈을 환원시키도록 가장 좋은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Shaw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 더욱 새로운 뜻을 두고 역설하였다.

#### 1. 간호의 기능에 대해서이다.

Shaw는 간호의 기능을 전염의 예방과 환자의 요구를 알아내는데 까지 확장 시켰다. 즉 앞서 말한 Nightingale의 說에 전염의 예방과 환자의 요구를 알아낸다는 새로운 면을 부가한 것이다.

2. 간호원과 환자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환자의 회복은 의술 보다는 환자가 받는 간호에 달려 있다고 하고 간호원과 환자의 도움과 의존하는 관계 즉 Helping-Dependency relationship을 모성적인 간호라는 말로 표현했다. 또한 Shaw는 간호원을, 실습하는 장소 즉 간호하는 장소에 따라 Home nurse와 Hospital nurse로 구분하였다.

3. 간호원의 의무에 대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역설했다.

1) 자기 자신에게 갖는 의무라고 하고 이는 다른 사람을 계속하여 도울는 의무라 했다.

2) 의사에게 갖는 의무라고 했는데 이는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일을 잘 실행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3) 환자에게 갖는 의무로서 이 의무는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무이며, 아울러 환자의 개인 요구를 예전하는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Nightingale과 Shaw의 지론을 저번에 본 Bertha Harmer의 이론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 IV. Bertha Harmer의 說

Harmer는 1922년에 저출한 그의 저서 "Text-book of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nursing"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전지에서 보는 간호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말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Bertha Harmer가 주장한 Theory를 편의상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기로 한다.

##### A) 간호의 목적

Harmer는 간호란 人間의 요구에 균형을 두어야 하고 남에게 봉사한다는 이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간호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기를 간호의 목적은 아픈 것을 치유하고 상처를 낫게 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를 망라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무기력 함이나 장애가 있을 때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하며 영양을 좋게 하여 심신을 편안케 해주고 쉽게 건강을 유지토록 하는데 있다

고 했다. 즉 간호의 목적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는,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다른 Social Agency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아울러 간호원은 일 개인의 간호에만 관계 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건강에도 관계됨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간호가 지역사회와 협조한 가운데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뜻한 것이고 아울러 간호가 일 개인의 질병 중심 간호에서 여러 사람의 건강 간호로 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뜻한 말이라 할 수 있겠다.

##### B) 간호 활동의 범위

Harmer는 간호 활동(행위)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설명하였다.

1. 환자의 주위 환경에 대한 간호를 얘기했다. 즉 환자의 주위 환경은 언제나 깨끗하고, 비례적 이어야 하며 조용하고도 질서 있고 또한 편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자의 회복을 증진하고 환자의 안녕에 도움을 주는 환경은 어떤 것이나 유의하여 간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환자 일신상의 간호에 대해 언급했다. 즉 특욕하고 석사하는 일, 환자를 편안케 해 주는 일, 환자의 요구에 유의하는 일 등,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자 일신상의 간호에 유의해야 됨을 역설했던 것이다.

3. Physician을 도움하는 일을 간호행위에 포함시켰다. 즉 예를 들어 Examinations, Treatments, Operations and tests 등이 있을 때 이를 준비하고 도움을 일을 그 하나로 품았고, 다른 하나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결과 등을 관찰하고 보고(report)하는 일로 규정 지었던 것이다.

4. Physician의 처방대로 시행하는 일을 얘기했다. 즉 Special diet을 주고 약물을 주며 치료를 해 주는 일 등 환자를 위해 Physician이 처방한 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Shaw가 말한, "Physician과 환자에게 갖는 의무"를 동시에 일컬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 C) 간호 기능

여기서 말하는 간호 기능은 Harmer 가 이를을 전개하기 前까지 내려오든 기본적인 기능 “外에 좀더 새롭게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Harmer 는 그 첫째가 ; 병원의 간호원이나 환자를 교육하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즉 경험이 많은 간호원들은 젊은 간호원 들을 가르치고, 모든 간호원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환자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개인 위생의 기준 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둘째로는 ; 병원에는, 환자를 위한 사회 사업부 즉 Social service department 가 있음을 알려 주는 일이라고 했다.

즉 Social service department 는 경제적인 돈 탄합을 넓어 주기도 하고 그들 가정의 걱정스러운 일 를 도와 준다느등 그 기능을 설명해 주고 이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해 주라는 것이다.

Harmer 는 또한 이에 부수하여 교육과 관계된 얘기를 하였는데, 공중 보건 사업(Public health work)에 있어서의 성과는 교육적 기반에 달려 있다고 역설 했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적당한 생활 습관, 즉 음식을 먹고, 휴식하고, 운동하여, 오락하고 또는 수면하는 등 질병에 대해 강한 저항력을 갖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가져오게 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것을 교육하는데 따라 Public health work 는 성공하든가 실패한다는 말이다.

이와같이 Harmer 는 Nightingale 과 Shaw 의 개념 계열을 통합하여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연의 운용은, 간호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있음을 이미 명백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D) Harmer's Theory 의 요약

1. Harmer 는 그의 개념의 체계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질병예방과 건강 유지에 대해 역설했다.

2. 환자를 돋는 방법을 좀 더 새롭고 명확하게 언급했다. 즉 위생에 대하여 교육하고 권리한 Social service 의 이용에 대해 이야기 해 주는 일을 이에 포함 시켰다.

3. 간호원은 의사가 하는 일에서와 같이 실습하는 장소와 간호 활동에 따라 구분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앞에서 말한 Nightingale 의 설과 같은 말로서, Nightingale 은 실습(간호)하는 장소에 따라 건강 간호와 질병간호로 구분 하였고 환자가 치료 받는 형태 (이는 결국 간호원의 간호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도 같은 뜻으로 보아도 좋겠다)에 따라 내과간호와 외과간호로 나눈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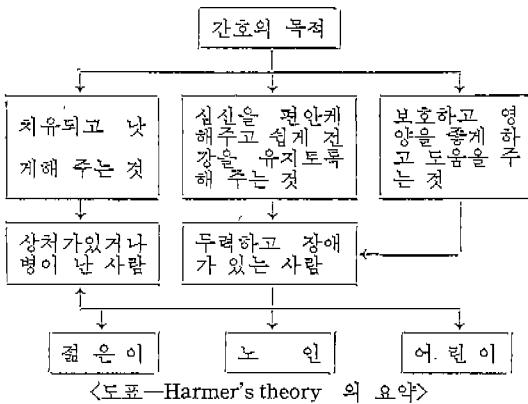
4. 간호는 의학 분야에서만이 아니고 보건분야에서도 Social agency 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어떤 형태로서의 간호이든 지역 사회의 협조 없이는 그 실현을 거두기 어려움을 강조한 말이며 아울러 당시 활발한 보건 활동이 없었던 것에 자극을 준 말이라 할 수 있다.

5. 간호원은 Public health work 을 위해 주로 교육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위생적인 습관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6. 간호의 개념은, 여러 사람의 요구를 알고, 여러 사람 즉 나 아닌 다른 여러 사람을 위해봉사 한다는 이념 하에서, 여러 사람 속에 근거와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Peoples”라는 말이 가지는 뜻을 충시해야 하며, 그 표현 형태는 다를지라도, 오늘날 지역 사회의 요구를 알고, 지역 사회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줄야 한다는 이론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알아야겠다.

### E) 결 론

Harmer 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범주 즉 젊은이, 노인, 어린이에 관계없이 병이 들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 혹은 무기력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등과 관계 있는 것으로 규정 짓고, 이에 필요한 행위 내지는 바람직한 결과 등과 관련있게 설명 했다. 즉 이들을(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 도울고, 영양을 좋게 하고 보호(휴식처를 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필요한 행위),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즐과 동시에(필요한 행위인 동시에 바람직한 결과), 심신의 안락과 평안함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게끔(바람직한 결과) 해 주는 일이라고 했든 것이다.



## V. 종 장

그러면 끝으로, 이러한 학설과 과정을 통해온 간호의 개념에 박차를 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한가지 발표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미국의 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Nursing은 대개의 간호학교 내지 간호학과의 Curriculum이 간호의 개념에 따라 조절되고 지배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1954년부터 1964년에 걸친 curriculum 연구 끝에 간호를 일종의 계속되는 문제 해결로 보고 다음과 같은 이론을 발표하였다. 즉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 Problem finding(문제 발견)이 필요하다고 했다.

2. Decision making Process(결정내리는과정)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Decision making process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다시 분석될 수 있다. 즉

1) 문제를 분석하고 명확히 알아야 한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alternatives)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아울러 선택하려는 대안이 가질 결과의 가치와 다른 가능성(예: 투약했을 때 그 효과와 부작용 등) 등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3)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Action(행위)으로 옮겨 쳐야 한다고 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도 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4. Evaluation(평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행해진 행위의 효과를 관찰하고 평가해

서, 다음에 있을지도 모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와같은 이론을, 간호를 질병과 건강에 관계 있는 것으로 찬주한 Nightingale이나 Shaw, 그리고 Harmer의 저론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해 보았다. 즉,

건강이란 : 대개의 人間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원천인, “힘의 균형”이다라고 할수 있고, 반면에

질병이란 : 人間이 어떤 종류의 방해를 받거나 불균형을 이뤘을 때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상처는 이 균형을 분열시키는 문제라 할 수 있고, 치료하는 과정은 불균형을 원상대로 복귀시키거나 내지는 원상대로 회복되지 않을 때는 단족할만한 상태로라도 만드는 것으로서, 여기에 직접으로 개입되는 간호는, 一 種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Problem Solving Process)이라고 論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과정은 시간이 걸려서는 안됨을 명심해 놔야 할 것이다.

University of California의 위와 같은 발표를 보면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점은, 간호가 하나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이라고 한 것이 바로, 간호를 기능 혹은 기술로만 생각치 않은 점이라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1. N.L.N 誌
2. Nightingale, F. Notes on nursing, London: Harrison, 1959 and 1914 editions
3. Nightingale, F. Sick nursing and health nurs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49 (1st Edition: 1893)
4. Harmer, B. Textbook of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nursing: New York: The Mac Millan CO., 1922
5. Nursing Outlook: July, August, 1966.
6. The Nursing Development Conference Group, Concept Formalization in Nursing Process and Product,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3, pp. 53~93.